

# 해남군, 경제 취약계층 건강 먹거리 챙긴다

### 전남 유일 농식품바우처 시범 선정 국비 10억6800만원 확보 푸드플랜 연계 농식품 이용권 제공

해남군이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먹을거리를 챙긴다.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68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위해 먹을거리 보장하고자 농식품 이용권을 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 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

구 기준 월 4만원의 바우처를 1년간 지원하며, 지역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유통 매장에서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 해남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서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해남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6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산 농산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 군민의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 멸종위기 '솔잎란' 첫 발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멸종위기식물인 '솔잎란(Psilotum nudum)'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솔잎란은 1989년부터 보호받고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식물이다. 제주, 경남, 전남지역에 자생하며 중국, 일본 등 세계의 열대·아열대지방에 두루 분포한다. 그동안 다도해해상국립공원(1981년 지정) 식물목록에 기록돼 있지 않았던 식물이다. 이번에 발견된 솔잎란은 해안가 숲에 있으며 약 4㎡ 공간 안에 총 3개체가 확인됐다. 솔잎란은 난(蘭)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고사리 종류의 포자식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3000만 년 전 관속식물로는 육상에 처음으로 진입한 '육소니아'라는 포자식물과 닮은 원시식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솔잎란은 줄기로부터 구성된 식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작은 잎이 줄기에 드문드문 돌기처럼 돌아 있을 뿐이다. 진정한 뿌리가 없다는 점에서 줄기가 뿌리로 진화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자생지가 바위 암벽이나 나무의 틈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솔잎란이 해안가 숲에서 자생지가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설명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무안 양파 대체 작목 육성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준공

### 청계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 14억 들여... 1만5천가마 건조

무안군이 양파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작목 육성에 나섰다. 무안군은 청계면 송현리 청계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국산밀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은 밀 1만5000가마(40kg)를 건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일로 300t 2기와 시간당 20t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2기, 시간당 30t을 계량할 수 있는 호퍼식 계량기, 시간당 30t을 선별할 수 있는 조선키 등을 갖췄다.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은 무안군과 청계농협이 지역의 특산물인 양파 연작 장해를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했다. 밀과 호미, 경관작물 등을 3년 이상 돌려짓기를 통해 양파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이번 건조·저장시설 사업



무안군은 지난 23일 청계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국산밀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식을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비 총사업비 14억600만원 중 5억원을 지원했다. 청계농협은 올해 밀 120ha를 재배해 750t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밀 145ha를 재배할 계획

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제2의 주식이지만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에 불과하다"며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땅도 살리면서

농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밀 재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영광군, 주민참여 '지내들 공동체 정원' 조성

### 지내들 옹기공원 1만3146㎡ 부지 그네벤치 설치·홍가시나무 심어

영광군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지내들 공동체 정원'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공동체정원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공동체 정원 사업으로,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경관 향상을 꾀하고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조성 방향과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지내들 정원은 군남면 포천리 지내들 옹기공원 일대 1만3146㎡ 부지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황토포장 산책로 655㎡, 데크래프 2개소, 그네벤치 4개소 등을 설치했으며,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홍가시나무 등 15종 총 5038그루를 심고, 넓은 광장을 조성했다. 군남면 지내들 옹기공원 일대는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돼 매년 찰보리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 '에너지자립 실증사업' 영암 신기마을 선정

영암 신기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시도에서 신청한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사업'을 심사해 영암군 신기마을과 충남 홍성군 신촌마을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영암 신기마을은 총사업비 3억1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으며,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공동 이용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얻어진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유와 전기 등 고비용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 중인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